

## 대도시 혁신지구로서의 테헤란밸리 ICT산업

이효선(성신여자대학교)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정부 주도로 시작된 ICT 산업의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테헤란로는 집중적인 오피스 공급이 시행되어 ICT 기업들에게 적절한 업무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는 테헤란밸리가 ICT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되었다. 1995년부터 테헤란로에는 당시 벤처 1세대로 주목받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반 벤처 호황기 속에서 ICT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던 테헤란로는 대한민국 ICT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실리콘밸리와 비교되어 '테헤란밸리'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테헤란밸리는 1990년대 이후 수많은 기업들을 배출하며 ICT 산업의 핵심지역이 되었고, 현재까지 서울에서 대표적인 ICT 산업기반 집적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벤처기업들의 성장세를 이끌던 테헤란밸리는 벤처열풍의 감소와 경제 악화로 기업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구로디지털밸리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새로운 집적지로 이전하며 공실률이 증가하고, 일부 기업들만 남아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스타트업의 주요 거점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본 연구는 벤처의 핵심이자 ICT 기업의 집적지로서 이들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강남구 테헤란밸리가 계획된 산업단지의 등장과 같은 주변 입지 변화 등으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및 창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하는 새로운 혁신지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도시 내 새로운 혁신지구의 등장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스타트업 및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과 기관들, 혁신을 주도하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 내 혁신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자산으로는 ICT 산업 사업체 현황, 창업지원시설,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 대도시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를 살펴보았다. 테헤란밸리는 과거 ICT 제조업 기반이었던 모습이었지만 도시형 혁신지구로 재도약하는 과정에서 ICT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변화하였다. 공간적·물리적 자산으로서 교통편의성, 공공공간, 여가공간 마련, 창업시설이나 공유오피스 등과 같은 장소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를 살펴보았다. 테헤란밸리의 네트워크 자산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모임 중 교

육, 강연, 컨퍼런스, 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되었다. 인적자산은 창업의 주체를 고려해 혁신적인 창업 활동이 가능한 고학력의 비중이 커야 혁신을 주도하는 창업의 비중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헤란밸리가 계획된 산업집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혁신지구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대기업 및 대규모 벤처기업의 유출에도 사라지지 않고 재도약하고, 스타트업을 거점으로 새로운 구성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남구 ICT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구조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도시형 혁신지구로서의 속성과 형성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헤란밸리에서 오래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테헤란밸리의 도시형 혁신지구의 주요요인을 크게 형태, 기능, 환경, 이미지 중에서 도시의 '기능'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각각의 주요요인에서 세부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의 '위치'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의 '다양한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화환경 (공공공간, 문화공간)'이, 이미지 측면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하위요인으로 강남구의 필수편의시설 기반과 대중교통을 비롯한 도시 이동성의 편리함,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의 공유가 도시형 혁신지구요인으로 작용하여 테헤란밸리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혁신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트업 관련 구성원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적인 면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이 스타트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은 혁신의 동인이 기업이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인재들과의 융합이 혁신 창출의 촉매제가 되었다. 인적자본은 투자를 위해 테헤란밸리에 모인다. 또한 교통의 편리함과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찾기 쉬운 점을 테헤란밸리가 혁신지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네트워킹이 필수인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 장소, 기회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